

## 인문학 활성화를 위한 도시 아카이빙의 사례 연구

김형준\*

### < 목 차 >

1. 서론
2. 도시 경관 아카이빙 사례
3. 도시 공간 아카이빙 사례
4. 결론

**【요약문】** 이 연구는 오랜 시간 도시를 만들어 온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보존 관리하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 아카이빙의 사례를 연구하는 데 있다.

최근 도시는 획일화된 형태의 모습으로 도시 고유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모든 지역의 도시가 유사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도시개발정책의 시행으로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대체되면서 기존의 장소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어 왔다. 따라서 한 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 발생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아카이빙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하여 도시 아카이빙을 문화적 측면에서 도시로서의 경관관리를 목표로 하는 도시 경관과, 다핵의 편의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하는 도시 공간으로 구분하여 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도시 경관 아카이빙의 대상은 6대 광역자치체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과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 도시 공간 아카이빙의 대상은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주제어】** 인문학 활성화, 도시, 아카이빙, 도시 아카이빙, 도시 경관, 도시 공간

## 1. 서론

도시는 다수의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거주하며 1차 산업의 비율보다 2·3차 산업비율이 높은, 주변지역과의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는 중심지로 정의된다.<sup>1)</sup> 정치·행정, 사회·문화, 시설·환경이 중심이 되는 곳을 가리키며 도시는 지역 안에 포함되어 다양한 특징요소들을 갖추고 있다.<sup>2)</sup>

아카이빙(archiving)은 기록(記錄)이 갖고 있는 정보와 증거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 그 속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과정이다. 기록의 수집, 평가, 선별, 분류, 정리, 기술, 보존, 서비스라는 제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록 관리로 정의된다.<sup>3)</sup> 그리하여 도시 아카이빙은 지역 내 한 도시가 만들어짐에 따라 발생되거나 유발된 일련의 행위들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도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도시의 고유성을 담게 되는 것이다.

벨라도(Bellardo)는 지리적 요인에 기반한 지역 출처(territorial provenance) 개념을 통해 지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진 기록은 보존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민간 기록(private records)을 수집하여 민간보존 기록관(private archives)에 보관하고, 공적영역이 아닌 민간영역으로서의 기록을 보존하며 관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sup>4)</sup>

도시는 순간의 역사가 지배하는 구조이다. 기록되지 않는 순간의 역사가 공간을 지배하면 도시는 고유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sup>5)</sup> 도심재생의 과정에서도 개발로 인하여 기존의 물리적 공간이 새로운 공간으로 대체되면 장소의 가치를 상실

1) 유승호, 『문화도시』, 2014, 27쪽.

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 2014, 8-10쪽.

3) 노명환 외,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2017, 13-33쪽.

"기록 관리에 대한 몇 가지 표준 용어집 상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록의 생산 유지 활용 처분의 체계적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 분야이다. 기록 관리는 기록을 적법 적절하게 생산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기록을 폐기하고 증거적 가치나 영구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 쉽게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을 말한다.(기록학 용어사전, 2008)

2) 기록의 생산, 접수, 유지, 이용, 처분을 능률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관리 영역으로서 업무 활동과 처리행위에 관한 증거와 정보를 기록의 형태로 획득, 유지하는 과정을 포함한다(ISO 15489-1, 2017)

3) 기록의 전 생애에 걸친 유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 생산, 이용, 처리, 제어, 유지, 처분에 있어 체계적이고 행정적인 제어를 하는 것(A glossary of archival and records terminology, SA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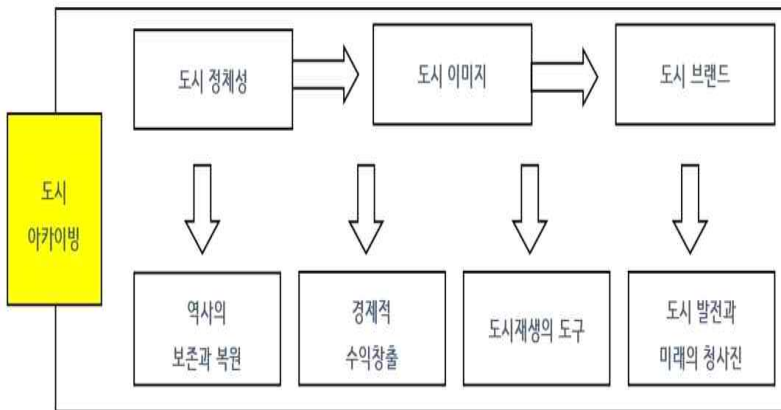
4) 권상구 외, 『Urban Archives: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장소의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 2014, 25쪽.

5) 이영범,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2009, 9쪽.

할 수밖에 없게 된다.<sup>6)</sup>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도시 아카이빙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도시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도시의 브랜드를 창출하는 등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그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다.<sup>7)</sup> 다음 <그림 1>은 이러한 도시 아카이빙을 구조화하였다.

<그림 1> 도시 아카이빙 구조



최근 도시는 획일화된 형태의 모습으로 도시 고유의 특성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다. 모든 지역의 도시가 유사한 환경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도시가 지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랜 시간 도시를 만들어 온 정체성을 기억하고 기록하여 보존 관리하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 아카이빙의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는 곧 역사를 보존하고 복원하며 경제적 수익창출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의 도구로 활용도 가능할 것이다. 본 사례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 도시 아카이빙의 현주소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6)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 2018, 21쪽.

7) 여진원, 『도시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34-35쪽.

## 2. 도시 경관 아카이빙 사례

도시 아카이빙은 문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도시 경관과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시 경관은 역사문화 도시로서의 경관관리를 목표로 하며, 도시 공간은 다핵의 편의성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한다.<sup>8)</sup>

도시 경관 아카이빙의 경우 도시문화 분야에 중점 하여 6대 광역지자체(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의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과 민간주도 형태인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도시 공간 아카이빙의 경우 역사문화를 주제로 근대역사문화의 아카이빙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로 한정하였다. 현정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해당되는 도시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선정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표 1〉 도시 아카이빙 사례

유형	주제	사업명	기관
도시 경관 아카이빙	도시 문화	·6대 광역지자체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해당 광역지자체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	민간단체
도시 공간 아카이빙	근대 역사 문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문화재청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역사문화 분야의 도시 아카이빙은 기존 도시구조와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전통적 건축물과 도시 경관을 보존하여 도심문화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함이다. 자연스럽게 도심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도시의 상징성 또한 구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준다.

8) 원제무, 『탈근대 도시재생』, 2012, 115쪽.

## 1)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

광역시자치체의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은 서울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에서 기록사업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서울특별시는 1995년부터「서울모습 제1차 사진 기록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매5년 단위의 연속사업으로 현재 5차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는 경관법이 제정된 이후 기록화사업이 추진되었고 울산광역시는 가장 최근인 2015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다.

‘도시 경관 기록사업’의 주관부서는 서울특별시(도시관리과), 인천광역시(도시경관과), 대전광역시(도시디자인과), 대구광역시(도시경관과), 부산광역시(도시정비과), 울산(도시창조과)에서 시행되었다. 수행기관은 학술용역으로 서울특별시(서울시립대학교), 인천광역시(인천연구원), 대전광역시(충남대학교), 대구광역시(대구경북연구원), 부산광역시(부산건축제 조직위원회), 울산광역시(울산연구원)으로 각 광역자치체별 연구원 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였다.<sup>9)</sup>

〈표 2〉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 추진현황<sup>10)</sup>

구분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추진 경위	1995년	2008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15년
사업 형태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변천기록 아카이브	보고서 화보집	사진 아카이브	보고서	도시경관 기록데이터베이스
경관 조례	경관조례 제9조	경관조례 제32조	경관조례 제11조	경관조례 제9조	경관조례 제9조	경관조례 제조
사업 기간	2014. 05~ 2015. 09	2008. 10~ 2010. 03	2011. 05~ 2012. 07	2009. 12~ (발간)	2008. 07~ 2010. 03	2014. 03~ 2015. 06
사업비	2억9천1백	2억8천4백	1억3천7백	-	1억	2억3천3백

9) 하승용·이정수, 「6대 특·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기록화 체계 및 방법 비교연구」, 2018, 774쪽.

10) 하승용·이정수, 「6대 특·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기록화 체계 및 방법 비교연구」, 2018, 774쪽 재인용.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의 목적은 도시의 경관을 관리하는 데 있다. 도시의 경관을 기록하고 경관 자료를 구축하여 경관 및 도시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광역지자체별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의 목적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는 지자체 시책사업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서울시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기록물로 구축하고 현재 서울의 특징적인 시대상을 찾아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지역 홍보와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데 있다.<sup>11)</sup> 인천광역시는 5년을 주기로 변화하는 인천의 경관을 사진이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초자료로 구축하고 인천의 도시경관을 내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sup>12)</sup> 대전광역시는 경관기록 아카이브 구축과 도시경관 관리, 경관 이미지 홍보에 대한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여 도시이미지 홍보에 ‘대전다움’을 앞세워 효과적인 경관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sup>13)</sup> 대구광역시는 대구의 도시 경관의 변화 모습을 기록하여 도시 경관을 통한 도시브랜드 가치를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며 대구의 역사문화에 대한 생생한 자료로서의 가치를 확인한다.<sup>14)</sup> 부산광역시는 도시의 성장을 비롯하여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고 변화하는 부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그 자료를 보존, 유지, 관리, 공유하고자 한다.<sup>15)</sup> 울산광역시는 도시의 변화상을 기록하여 도시의 역사자원을 계승하고 대규모 개발계획 및 도시경관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그리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흥미유발로 관광 및 시정홍보는 물론 시민의 자발적인 시정참여에 목적을 두었다.<sup>16)</sup>

11) 서울특별시,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 2014, 3쪽.

12)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기획보고서』, 2010, 1쪽.

13)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2011』, 2012, 164쪽.

14) 최영은, 『대구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추진 방안』, 2009, 3-4쪽.

15) 부산건축문화제 도시기록화사업 홈페이지 : <http://www.biacf.org/?d=show&f=city>

16) 울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록보고서』, 2015, 7쪽.

<표 3> 6대 광역지자체 도시 경관기록물 활용 내용

지자체	기록물	내용
서울 특별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5차 사업을 거쳐 약 25,000장의 사진으로 지난 20년간 서울의 변화를 기록(웹사이트/화보집)
인천 광역시		·2010년 1차 사업을 시작으로 인천의 도시 경관을 체계적 이고 지속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인천다움' 기록(웹사이트)
대전 광역시		·2011년부터 대전의 경관을 기록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1년 동안 대전의 경관자원을 다양한 시점에서 기록(e-book)
대구 광역시		·2009년부터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삶이 투영된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웹사이트) ·2011년 대구경관자원 52선
부산 광역시		·2008년부터 도시정비사업으로 사라지고 변화하는 부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기록보존(웹사이트)
울산 광역시		·2014-15년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을 시작하며 과거의 모습을 확인하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기록보존(웹사이트)

6개 광역지자체의 공통된 목적은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을 기록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도시를 브랜드 하여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기획연구를 시작으로 하여 사진자료를 바탕으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화보집을 발간하는 등 전시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디지털 사진아카이브 웹페이지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며 적극적인 아카이빙 서비스를 이어 나가고 있다.<sup>17)</sup>

17) 6개 광역지자체별 '도시 경관 기록사업' 디지털사진 아카이브 홈페이지

## 2)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

2009년 5월 원주에 살고 있는 생활사진가들과 시민 전문가 총34명, 7개 시민 기록 팀은 원주의 24시간을 기록하는 색다른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도시화화 과정에서 도심재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또다시 재개발되어 사라지는 원주를 기록이라는 과정을 통해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원주24시 도시기록 프로젝트’로 2009년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원주시 인동아트갤러리에서 “원주... 길을 걷다”展이 열리게 되었다.<sup>18)</sup>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는 2009년 11월부터 시민주도의 사진단체로 창립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최근 2018년까지 10여 년 동안 꾸준히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사람, 길, 전경과 야경 등 다양한 콘셉트를 설정하여 매년마다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

2010년 “기억의 증거, 사진을 보다”展은 원주의 원동지구, 정지뜰, 대명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일상의 풍경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었다.<sup>19)</sup> 원주의 원동지구는 2000년 초 재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었다. 2011년 “풍경, 도시를 폼다”展은 원주의 야간경관, 문화유적, 원주의 일상 등 3개 분야로 촬영주제로 10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sup>20)</sup> 2012년 “도시의 풍경, 시간의 탐색”展은 원주의 이슈, 학생동, 정지뜰, 우산동 등 재개발사업 지역과 원주천 풍경과 주민들의 삶, 기차가 지나는 풍경, 도시 풍경 등 5가지 주제로 진행되었다. 사라지기 전의 도시와 공간의 개성을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으로 1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되었다.<sup>21)</sup>

1)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 : <http://data.si.re.kr/seoulphoto>

2) 인천도시경관 아카이브서비스 홈페이지 : <http://imap.incheon.go.kr/archive/main.do>

3)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기록보고서

: <http://www.daejeon.go.kr/data/urb/ebook/dosi2011/EBook.htm?menuSeq=1347115>

4) 대구도시경관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daeguview/index.do?menu\\_id=00935342](http://www.daegu.go.kr/daeguview/index.do?menu_id=00935342)

5) 부산건축체 도시기록화사업 홈페이지 : <http://www.biacf.org/?d=show&f=city>

6) 울산광역시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 : <http://www.ulsanarchive.re.kr/main.action>

18) 사진가 김시동, <윤영이 외, 원주... 길을 걷다>, KISS PHOTO, 2009년 06월 02일, <http://kissphoto.net/zbx/exhibition/1266312>.

19)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 ‘기억의 증거, 사진을 보다’>,《원주투데이》, 2010년 08월 02일,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0598>.

20)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 ‘풍경, 도시를 폼다’>,《원주투데이》, 2011년 08월 22일,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34>.

21)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 ‘도시의 풍경, 시간의 탐색’>,《원주투데이》, 2012년 08월 03일,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368>.

2013년부터 ‘2013 원주사진주간’ 행사로 기획하여 “시민이 만드는 지역문화, 시민이 기록하는 지역가치”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기존의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와 함께 특별전시를 개최하였다. 프로젝트 전시인 “원주의 북쪽”展은 소초면, 태장동, 봉산동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의 공간과 건축물, 주민들의 삶, 마을 문화 등을 테마 사진을 전시하였다. 강원아카이브협동조합에서도 ‘마음으로 담은 원주’라는 테마로 원주의 자연, 문화, 축제 등을 담아 전시에 참여했다.<sup>22)</sup> 2014년에도 ‘2014 원주사진주간’ 행사로 문화기업, 협동조합, 전문예술단체, 지역 문화활동가와 시민작가들이 주체가 되어 3가지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 “신들의 숲, 신림”展에서는 산림기록화 작업을 주제로 하여 신림면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겼다. 특별전으로는 ‘내 곁에 숨어있던 원주전’으로 원주역과 반곡역을 비롯하여 원주교육문화관, 원주한지테마파크, 중앙시장 및 문화의 거리, 북아트카페 라비, 북카페 달빛마루, 간현레일파크 등 8곳의 커뮤니티 공간에서 전시되었다. 이외에도 시민참여 프로그램(사진인문학 워크숍, 사진미디어교실, 지역읽기포토타라킹)등의 행사가 진행되었다.<sup>23)</sup> 2015년 “천년의 기억, 귀래”展은 원주지역을 대표하는 담배 주산지 귀래면을 주제로 삼았다. 담배건조장 15곳을 촬영하여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와 함께 책자에 기록했다. 전시기간 중 ‘지역기록과 미래유산’이라는 주제로 지역아카이브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또한 중앙시장 골목갤러리에서는 ‘다큐멘터리 강원’을 주제로 하여 원주의 대표 문화유산을 촬영한 사진작품을 전시하기도 했다.<sup>24)</sup>

2016년부터 ‘원주 사진주간’이라는 명칭대신 ‘지역기록문화축제’로 바뀌게 되면서 행사 또한 다채로워졌다. 2016년에는 ‘부론면 지역기록화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시간의 견딤, 기억의 유산, 부론”展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특별전은 2015년 전시주제였던 귀래면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공부책 ‘귀한 분이 오시는 귀래(貴來)’가 출간되었다.<sup>25)</sup> 2017년 제5회 기록문화축제에서는 호저면 지역

22) <9~18일 사진주간 행사>,《원주투데이》, 2013년 08월 05일,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19>.

23) <원주사진주간, ‘기억하는 시간, 미련남는 기억 2014’>,《원주투데이》, 2014년 09월 01일,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533>.

24) <‘천년의 기억, 귀래’ 사진전 열린다>,《원주투데이》, 2015년 08월 31일,

<http://www.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119>.

25) 국가균형발전포털 블로그, <2016원주기록문화축제>, 2016년 10월 13일,

<https://blog.naver.com/redis12/220835259685>.

기록화사업 전시 및 출판으로 “기억이 숨 쉬는 땅, 호저”展이 개최되었고, 시민 참여 프로그램인 포토트래킹과 시민사진 강좌가 개설되었다. 26)

〈표 4〉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 전시 현황27)

 <p>“원주... 길을 걷다”展 2009.5.3~6.5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p>	 <p>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 <b>기억의 증거, 사진을 보다.</b> 2010.8.6~8.15 원주교육문화관</p>	 <p>도시의 풍경, 시간의 탐색 2011-2012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p>	 <p>2013 원주사진주간 2013.8.10~8.20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p>
 <p>2013 원주사진주간 2013.8.10~8.20 원주24 도시기록프로젝트</p>	 <p>2013-2014 지역기록문화축제 2014 원주사진주간 2014.09.12 - 2014.09.21 원주교육문화관</p>	 <p>2015 제3회 지역기록 문화축제 2015.9.4~9.13 원주교육문화관</p>	 <p>2016 제4회 지역기록 문화축제 2016.9.1~9.11 원주교육문화관</p>
 <p>2017 제5회 지역기록 문화축제 2017.11.3~11.12 원주교육문화관</p>	 <p>2018 제6회 지역기록 문화축제 2018.11.3~11.11 원주교육문화관</p>	 <p>10주년 기념포스터 2018.11.3~11.11 원주교육문화관</p>	 <p>2018 전시관 2018.11.3~11.11 원주교육문화관</p>

2018년에는 도시기록 프로젝트 1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이 기억한 10년, 사회적 기록으로’ 아카이브 기획전과 “섬강의 삶이 흐르는 지정면”展이 열렸고, 지역커뮤니티 기획전으로 제3회 강원다큐멘터리 사진전 ‘횡성댐수물지역 10년의 기록, 수하리 사람들’이 전시되었다. 시민사진전으로는 ‘나의 도시, 나의 가족, 우리의 기억’이 주제가 되었다. 지역아카이브 세미나로 ‘지역아카이브의 사회적 역할’이 개최되었다. 28)

26) 강원아카이브 블로그, <2017지역기록문화축제>, 2017년 11월 01일, <https://blog.naver.com/photogangwon/221130427803>.

27) 강원아카이브 블로그, <지역기록문화축제>, <https://blog.naver.com/photogangwon>.

28) 강원아카이브 블로그, <2018지역기록문화축제, 10년의 기록, 시간의 미래>, 2018년 11월 05일, <https://blog.naver.com/photogangwon/221391763185>.

### 3. 도시 공간 아카이빙 사례

#### 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목포시 원도심은 근대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1897년 10월 1일 개항 이후 조계지역으로 일본인에 의해 개발되었다. 조계지구 내 계획 시기자인 현재의 유달동, 만호동과 쌍교동 방면의 비계획 시기자인 목원동, 죽교동, 대성동으로 구분되었다. 당시 조계지구는 격자형 도로로 계획되어 근대건축물의 형태를 규격화 시켜 2층 건물을 비롯한 일정 규모의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었다. 당시 일본인들은 현재의 유달동, 만호동에 거주하였기에 일본식 가옥들이 각 동마다 골고루 분포해있었다.<sup>29)</sup>

1972년「유달산공원화사업」으로 유달산 부근의 판자촌과 피난민촌 건물이 철거되면서 도시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 1990년부터 원도심의 오래된 건물은 불량지구로 분류되었고, 주요 관공서와 학교가 하당의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상가와 주거주민은 침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sup>30)</sup> 법 제정 이전이지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인구 감소,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노후 주택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목포시의 원도심은 쇠퇴지역으로 분류된다.<sup>31)</sup> 그리하여 2006년 1월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목포시는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의 회복을 통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개발사업 위주의 활성화 정책은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

29) 한만희, 『목포시 근대건축물의 보존실태와 활용방향에 관한 연구』, 2016, 11-15쪽.

30) 윤봉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2, 37-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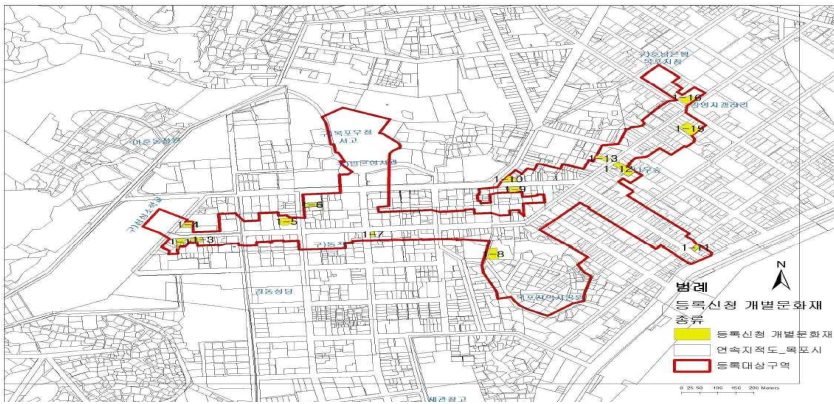
3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844호, 2015. 12. 31., 타법개정) 제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이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한 채 원도심 쇠퇴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sup>32)</sup>

하지만 2018년 문화재청에서 도시재생활성화 촉진을 위한 ‘선(線)·면(面)’ 단위 문화재 등록 제도를 새로 도입하면서 목포의 원도심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근대 시기에 형성된 마을인 유달동과 만호동의 건물과 거리, 경관이 이에 해당된다.

<그림 2>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현황도<sup>33)</sup>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만호동·유달동 일원/114,038㎡)’은 1897년 개항 이후 목포가 격자형 도로망에 의해 근대적 계획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과 당시의 생활상 등을 엿볼 수 있는 중심지역이다. 이 공간 내에 조선시대 목포의 시작을 알리는 ‘목포진지’를 비롯해 ‘구 목포 일본영사관’,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목포 지점’, ‘구 목포공립심상소학교’ 등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다양한 근대건축유산이 자리 잡고 있어 보존과 활용의 가치가 높은 곳이다.<sup>34)</sup> 또한 근대 도시 경관과 주거 건축사, 생활사 등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뛰어난 15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되었다.<sup>35)</sup>

32) 노경윤,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2009, 50-51쪽.

33)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2018년 08월 08일.

34)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2018년 08월 08일.

[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927&sectionId=b\\_sec\\_1&pageIndex=1&strWhere=&strValue=&mn=NS\\_01\\_02](http://www.cha.go.kr/newsBbz/selectNewsBbzView.do?newsItemId=155700927&sectionId=b_sec_1&pageIndex=1&strWhere=&strValue=&mn=NS_01_02)

35)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18-1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1, (등록문화재 제718-2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2, (등록문화재 제718-3호) 목포 번화로 일본식가옥-3, (등록문화재 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개별 건물의 등록이 아닌 지정된 공간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특정 개인의 건물매입이 논란이 되었다. 2019년 1월 손혜원 의원이 창성장 외 다수의 건물을 매입하며 투기논란이 일었던 것이다.<sup>36)</sup> 구입한 건물이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다.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다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었다면 지금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 논란의 시사점으로 도시재생에 있어 쇠퇴지역의 주민참여의 역할에 대해 고려해보아야 하겠다. 문화재로서 가치는 재개발 이후 발견될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공간 전체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사례가 없어서 더 큰 문제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간의 역사문화의 가치를 알고 도시 공간이 아카이빙 된다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같은 시점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sup>37)</sup>,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sup>38)</sup> 2곳도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되었다.

---

718-4호) 목포 영산로 일본식 가옥, (등록문화재 제718-5호) 구 목포부립병원 관사, (등록문화재 제718-6호) 구 목포 일본기독교교회, (등록문화재 제718-7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1, (등록문화재 제718-8호) 목포 해안로 일본식 상가주택, (등록문화재 제718-9호) 목포 해안로 교차로 상가주택, (등록문화재 제718-10호) 목포 부두 근대상가주택, (등록문화재 제718-11호) 구 동아부인상회 목포지점, (등록문화재 제718-12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2, (등록문화재 제718-13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3, (등록문화재 제718-14호) 목포 해안로 붉은 벽돌 창고, (등록문화재 제718-15호) 구 목포 화신연쇄점”















- 36) <손혜원 측근들, 목포 문화재 지정 전에 건물 9채 사들여... 건물값 4배 뛰었다>, 《조선일보》, 2019년 01월 15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32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5/20190115032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37) 문화재청,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 (장미동 일원/152,476㎡)은 1899년 대한제국 개항 이후 초기 군산항의 모습에서부터 일제강점기 경제 수탈의 아픈 역사와 근대산업화 시기를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러 시설과 흔적들이 잘 남아 있어 보존·활용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공간 내에 있는 뜬다리 부두(부잔교, 浮棧橋), 호안(항만 석축구조물), 철도와 구 제일사료주식회사 창고, 경기화학약품상사 저장 탱크 등 5개 핵심 시설과 건축물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또한, 인근에는 대한제국 개항기에 건립한「구 군산세관 본관」과 일제강점기 경제·산업적 수탈을 위해 들어선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 그리고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이 있다.”

- 38) 문화재청,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 (두서길광복로 일원/26,377㎡)는 근대 시기 영주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핵심 공간으로, 영주역의 생성과 더불어 그 배후에 만들어진 철도관사를 비롯해 정미소, 이발관, 근대한옥, 교회 등 지역의 근대생활사 요소를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 거리로서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 거리 내의 ‘구 영주역 관사’, ‘풍곡정미소’, ‘영주 제일교회’ 등 6건은 별도의 문화재로 등록하였다.”

〈표 5〉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진자료<sup>39)</sup>

등록문화재 제718호-			
	제1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1	제2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2	3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가옥3
			
제4호 목포 영산로 일본식가옥1	제5호 구 목포 부립병원 관사	제6호 구 목포 일본 기독교회	제7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1
			
제8호 목포 해안로 일본식 상가주택	제9호 목포 해안로 교차로 상가주택	제10호 목포 부두 근대상가주택	제11호 구 동아 부인상회 목포지점
			
제12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2	제13호 목포 변화로 일본식 상가주택3	제14호 목포 해안로 붉은 벽돌창고	제15호 구 목포 화신연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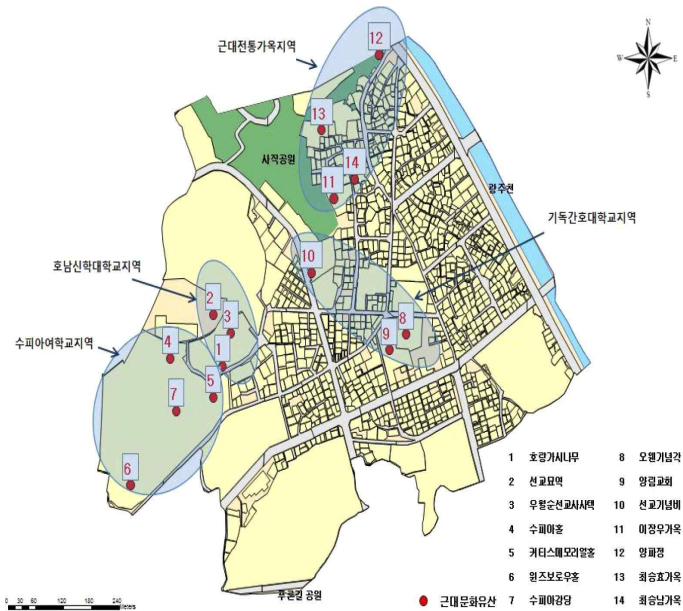
이와 같은 공간을 기반 한 단위 문화재 등록제도는 기존의 개별 문화재 중심의 한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시 공간 아카이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39) 문화재청, <「근대역사문화공간」재생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2018년 08월 08일.

## 2)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은 동쪽의 광주천을 경계로 동구 금동, 서쪽으로 백운 1, 2동, 남쪽으로 방림 1동, 북쪽은 사직동과 접해있는 지역이다. 일제시대에 선교사가 들어와 여학교와 병원을 개설하여 ‘서양촌’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림동은 광주기독교선교의 발상지로 우일선교사 사택 및 400년이 넘는 양림 호랑가 시나무 등 많은 기독교 선교문화유적이 산재해 있다. 또한 충효개비석을 비롯하여 지방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등 우리 전통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sup>40)</sup>

〈그림 3〉 양림동 근대문화유산 분포41)



양림동은 근대문화의 요람으로 광주 근대문화의 발상지로 불린다. 광주의 근대사를 이끌었던 인물들이 활동했던 역사의 중심지이며 선교문화와 전통문화가

40) 양림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m.namgu.gwangju.kr/menu.es?mid=b20201000000>. 내용 재구성.

41) 나은정, 『광주광역시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2014, 30쪽 재인용.

유일하게 공존해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선교문화의 기록화작업은 여진원(2016)의 선행연구에서 이루어졌다.<sup>42)</sup>

양림동의 아카이빙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다. 양림동은 낙후된 지역을 재생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역사문화마을조성에 앞장섰다. 광주시청과 광주YMCA, 주민들이 재생의 주체가 되어 전통과 옛 이야기를 발굴하고, 근대문화유산을 추가하기 위한 아카이빙을 시도했다. 또한 양림동 출신으로 중국의 3대 음악가 정율성을 문화콘텐츠로 개발하여 기본적인 자료수집으로부터 2004년 정율성 국제 학술대회, 2005년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개최하였다.<sup>43)</sup> 지금까지 매년 정율성 기념사업을 이어가며 최근 2019년에는 오페라 ‘망부운’을 57년 만에 무대에 올리며, 정율성 관련 유적들을 재정비하고 기념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sup>44)</sup> 또한 2007년부터 근대문화유산을 바탕으로 문화마을유산 만들기예 앞장섰고, 2008년부터 근대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해 문화탐방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광주 최초의 기독교 정착이라는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역사문화 마을관광 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며 근대문화유산을 정비하고, 산책로를 조성하는 등 다양한 시도로 진행하였다.<sup>45)</sup>

이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서 ‘근대역사문화 보고, 살고 싶은 양림’ 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와 시비 등 사업비 200억을 확보했다. 양림동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이 혼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벌이는 일반 근린형 뉴딜사업에 선정돼 문화거점 시설 만들기 및 골목상권 활력 증진,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계획 중이다.<sup>46)</sup>

42) “역사와 문화 측면에서 ‘선교(宣敎)’와 관련된 양림동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기록물의 수집과 생산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기록물은 단행본 40권, 학위논문 및 학술지 21건, 신문기사 171건, 지역지 92건, 사진자료 1,133건으로 나타났다. 생산된 기록물 8건(선교관련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으로서 오웬 기념각, 수피아 홀, 유월순 선교사 사택, 유진벨 기념관, 윈즈버로우 홀, 수피아 강당, 선교기념비, 선교묘역)으로 명칭, 지역과의 관계 특정인물소재와의 관계, 기타 특징으로 나타내었다.” 여진원·장우권, 「도시기록화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2016, 396-413쪽.

43) 홍옥범,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2015, 96쪽.

44) <이용섭 시장 “정율성 발자취 따라 찾아오는 광주 만들겠다.”>, 《국제뉴스》, 2019년 3월 31일.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3139>.

45) 정세영,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2015, 57쪽.

46) <남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사업비 200억 확보>, 《천지일보》, 2017년 12월 14일.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74254>.

〈그림 4〉 양림사직타운 주변 도시재생활성화지역<sup>47)</sup>

구체적인 단위사업으로 주거복지실현, 사회통합, 일자리창출, 도시경쟁력향상, 연계사업이 진행된다.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주택정비를 지원하고, 안전 도시 사업과 소공원 등을 조성한다. 사회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프리마켓운영, 주민역량강화교육, 문화교류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버들숲양림주민문화발전소와 청년창작소, 골목경제활성화를 통하여 일자리 창출 또한 기대하고 있다.<sup>48)</sup> 특히, 양림사직동 일원의 근대역사문화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하나로 연계할 수 있는 역사관광자원의 연계 방안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양림역사문화마을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투어프로그램 및 골목길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음악가 정윙성 생가 복원 및 김현승 시인 문학관 건립 등 양림동 역사문화 인물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아카이빙 작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sup>49)</sup>




47) 정세영,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2015, 57쪽.

48)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사업요약서>, 양림동행정복지센터, 2018년 05월 04일.

[https://namgu.gwangju.kr/board.es?mid=b20302000000&bid=0001&list\\_no=5638&act=view](https://namgu.gwangju.kr/board.es?mid=b20302000000&bid=0001&list_no=5638&act=view).

49) 광주광역시, 『2025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6, 209-210쪽.

<표 6>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아카이빙 현황<sup>50)</sup>

역사문화장소	 커티스 메모리얼홀	 윈스브로우홀	 수피아홀	 선교사묘역
	 우일선선교사사택	 오웬기념각	 이장우가옥	 최승효가옥
역사인물들	 유진벨 Eugene Bell 배유지 / 裴裕址 (1868-1925)	 최흥중 Ch'oe Heung Jong 崔興中 (1879-1966)	 정율성 Jeong Yul Seong 鄭律成 (1914-1976)	 정주 Jeong Chu (1923-2013)
	 우일선 Robert Manton Wilson 魏恩 高一善 / 高錫淳 (1880-1963)	 오웬 Clement Carrington Owen 歐基爾 / 오웬 奧基元 (1867-1909)	 윤형숙 Yoon Hyeong Suk 尹亨淑 (1900 - 1950)	 조아라 Cho Ara 曹亞羅 (1912-2003)
테마여행	기독교문화길			
	 양림마을미션가이던	 아라스기념관	 우일선교회	 오웬기념각
	 선교기념비	 선교사묘원	 우일선선교사사택	 백윤지기념예배당 (커티스메모리얼홀)
문화산책길				
 양림마을미션가이던	 윈스브로우홀	 만텔홀	 윈스브로우홀	
 최승효가옥	 한위원미술관	 아라미술관	 양림교회	
 만텔홀	 이장우가옥	 정주정일지켜	 김영중시터	
 윈스브로우홀 (수피아여자중학교)	 윈스브로우홀	 광주기독교병원	 정율성기념비	
 윈스브로우홀	 윈스브로우홀	 윈스브로우홀	 윈스브로우홀	

지금까지 양림동의 근대역사문화에 대한 아카이빙 작업은 ‘시간의 길목에서 예술을 만나다, 역사문화마을 양림’ 홈페이지에 구축하였으며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문화관광활성화형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다.

#### 4. 결론

도시 아카이빙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도시 고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지게 된 일련의 행위를 기록하고 보존하며 관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도시 문화의 보존을 위한 ‘도시 경관 아카이빙’의 경우 6대 광역지자체 사업인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과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근대 역사문화를 주제로 한 ‘도시 공간 아카이빙’의 경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을 살펴보았다.

먼저 ‘도시 경관 기록화사업’은 도시의 경관을 기록하고 경관 자료를 구축하여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기초자료로써 활용되었다. 급변하는 도시의 경관을 기록하거나 지역 홍보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것은 곧 도시의 정체성 확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원주24 도시기록 프로젝트’의 경우 2009년 5월부터 원주에 살고 있는 생활 사진가들이 재개발이 되어 사라지는 원주의 일상을 기록하였다. 지역의 역사성과 특수성, 사람, 길, 전경과 야경 등 다양한 콘셉트를 설정하여 전시하며 지역 아카이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 공간 아카이빙의 사례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은 목포시 원도심의 근대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일본인에 의해 개발된 조계지역이다. 공간 자체의 역사문화 가치를 알고 특정한 도시 공간 전체가 아카이빙 된다는 점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하겠다. 그밖에 ‘군산 내항 역사문화공간’이나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가 이와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광주 남구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이다. 일제 강점기에 서양촌으로 불리기도 한 양림동은 광주기독교선교의 발상지이다. 근대문화의 요람으로 광주 근대문화의 발상지로 선교문화와 전통문화가 유일하게 공존해 있는 공간을 아카이빙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하지만 그 변화된 모습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미래에 도시의 역사자원을 계승하는 데 이바지함이 틀림없다.

##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2025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전략계획』, 2016.
- 권상구 외, 『Urban Archives: 창조적 도시재생을 위한 장소의 기록과 기억의 재구성』, 안양시 국토연구원, 2014.
- 나은정, 『광주광역시 양림동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도시재생』,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노경운, 『목포시 원도심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노명환 외, 『아카이브 콘텐츠 아카이빙』, HUINE, 2017.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도시경관기록화사업2011』, 2012.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새로운 도시, 도시계획의 이해』, 보성각, 2014.
- 서울특별시, 『서울경관 기록화사업(5차)』,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2014.
- 신성환·유춘동, 「강원지역의 오래된 음식 가게[노포(老鋪)]의 현황과 특성」, 『철학·사상·문화』 제36호, 동서사상연구소, 2021.
- 여진원, 『도시 기록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5.
- 여진원·장우권, 「도시기록화 사례연구: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의 근현대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7집 1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2016.
- 울산광역시, 『도시경관 기록보고서』, 2015.
- 원제무, 『탈근대 도시재생』, 도서출판 조경, 2012.
- 유승호, 『문화도시』, 도서출판 가제, 2014.
- 유춘동,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외국인 유학생의 방과후 수업의 운용 사례」, 『교양학연구』 제11집,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0.
- 윤봉옥,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영범, 『도시의 죽음을 기억하라』, 미메시스, 2009.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제1차 도시경관기록화사업 기획보고서』, 2010.
- 정두호·유춘동, 「서울시 중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레트로(Retro)의 연계」, 『철학·사상·문화』 제33호, 동서사상연구소, 2020.
- 정세영,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문화매개자의 역할 분석』,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최영은, 『대구 도시경관 기록화 사업 추진 방안』, 대구경북연구원, 2009.
- 하승용·이정수, 「6대 특광역시 도시경관 기록화사업의 기록화 체계 및 방법 비교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19권 6호, 한국기초조형학회, 2018.
- 한만희, 『목포시 근대건축물의 보존실태와 활용방향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 한지은, 『도시와 장소 기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8.
- 홍옥범, 『문화적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관광 활성화 방안』,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강원아카이브 블로그 : <https://blog.naver.com/photogangwon/221130427803>.
- 국가균형발전포털 블로그 : <https://blog.naver.com/redis12/220835259685>.
- 대구도시경관 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
- 대전광역시도시경관기록보고서 : <http://www.daejeon.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 부산건축문화제 도시기록화사업 홈페이지 : <http://www.biacf.org/?d=show&f=city>
- 부산건축제 도시기록화사업 홈페이지 : <http://www.biacf.org/?d=show&f=city>
- 서울특별시 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 : <http://data.si.re.kr/seoulphoto>
- 울산광역시도시경관기록 홈페이지 : <http://www.ulsanarchive.re.kr/main.action>
- 인천도시경관 아카이브서비스 홈페이지 : <http://imap.incheon.go.kr/archive/main.do>
- 조선일보 홈페이지 : <http://news.chosun.com>

## Abstract

### A Case Study for Urban Archive to Revitalize Humanities

Kim, hyung joon\*

The study is based on the study of cases of urban archiving, which can give meaning to remembering and documenting the identity that has long created the city and preserving and managing it.

Recently, cities in all regions have become similar in form, failing to make use of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in a city in a uniform form. In addition, its value as an existing place has been lost as the existing physical space has been replaced by a new space due to the indiscriminat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olicies. Therefore, it can be recognized that the role of archiving in recording and managing a series of actions that have occurred as a city is created is important.

Therefore, the plan was to examine the case by dividing urban archiving into urban landscapes aimed at managing the landscape as a city in terms of culture and urban spaces aimed at creating a complex cultural space centered on the convenience of multiple nuclei.

The targets of urban landscape archiving are the six major metropolitan governments, the "Urban Landscape Recording Project" and the "Wonju 24 Urban Record Project," and the targets of urban space archiving are the "Mokpo Modern History and Culture Space" and the "Modern History and Culture Village in Yangrim-dong, Nam-gu, Gwangju.

【Key words】 Humanities, City, archive, city archiving, cityscape, city space

---

\* Instructor, Dept of Korea Language&Litera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 논문접수일: 2021. 10. 05. 논문심사기간: 2021. 10. 22. ~11. 03. 게재확정일: 2021. 11. 24.